

내 기도의 참 뜻

The True Meaning of My Prayer

누가복음 1:5-20

그리니치 한인교회

2010년 12월 12일 설교

⁵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아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⁶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⁷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하므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의 나이 많더라. ⁸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새 ⁹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¹⁰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¹¹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¹²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¹³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 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¹⁴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¹⁵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¹⁶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 이니라. ¹⁷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¹⁸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¹⁹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²⁰보라. 이 일의 되는 날까지 네가 병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네가 믿지 아니함이어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리라” 하더라.

완벽함과 아쉬움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론의 직계 후손입니다 (대상 24:10). 아론 자손 제사장은 몸과 마음을 늘 거룩하게 지키면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향도 올려 드리고 하나님 말씀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대상 23:13; 레 10:11). 아내 엘리사벳도 아론 자손입니다. 여자라서 제사장은 못 되었지만 제사장 집안 사람이니 똑같은 거룩함과 경건의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의인이니 바로 살았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바로 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으니 얼마나 훌륭합니까? 오래 전 살았던 노아나 욥하고 비슷한데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부부 둘이 다 그랬다 하였으니 참 대단한 집안입니다 (창 6:9; 욥 1:1; 겔 14:14, 20). 하나님 말씀을 지키되 흠이 없이 지켰습니다.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도덕적인 흠은 없었는지 모르지만 가정적인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하므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의 나이 많더라.” 자녀가 없습니다. 게다가 두 사람 다 늙어 가능성도 없습니다. 복 가운데서도 자식 복을 으뜸으로 치던 시절입니다. 자녀를 못 낳는 건 하나님의 저주라고까지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나이 들도록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산 사람이, 자식을 달라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남들 다 있는 자식이 왜 없습니까?

하나님을 바로 섬기며 살았으니 사랑, 감사, 기쁨, 은혜, 평화, 이런 게 넘쳤겠지요. 그런데 뭔가 조금씩 모자랍니다. 사랑도 조금 모자라고, 감사도 조금, 기쁨도 조금, 이렇게 다 조금씩 모자랍니다 (14절).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살았지만 은혜와 평화는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오랜 기도와 응답

그런 사가랴가 제사장 일을 맡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사장들이 돌아가면서 일을 맡는데 마침 사가랴 차례가 된 거지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향을 태워드렸습니다. 향을 태워드리는 것은 기도를 올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 시간 성전 밖에서 기도했습니다 (시 141:2; 계 5:8; 8:3-4). 사가랴도 향만 올리지는 않았겠지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사가랴가 놀랐습니다. 당연하지요. 혼자 성전에 들어와 향을 올리고 있는데 사람도 아닌 천사가 나타났으니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래서 천사도 “무서워 마라” 하는 말부터 했습니다. 이어 말하기를 “네 간구가 응답되었다” 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는 말이지요?

기도한 게 하나 둘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대뜸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줄 것이다”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를 기도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간절한 기도는 자식을 달라는 기도였다는 말이지요. 천사도 알고 사가랴도 알았습니다. 적어도 그 당시에는 그만큼 절실한 게 다시없었습니다. 그러니 두 사람이 늙었는데도, 어떻게 보면 사람의 상식으로 불가능한데도, 기도를 계속했던 것 아닙니까?

한 걸음 더

그런데 응답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내가 간구한 것과 차원이 조금 다릅니다. 나는 자식을 하나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다릅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늘그막에 아버지가 된 다니 내가 기쁘고 즐거운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다른 많은 사람도 그의 탄생을 기뻐할 것이다” 하는 건 무슨 말씀입니까? 내 아이가 태어나는데 왜 남들이 기뻐합니까?

천사가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는 저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사가랴의 아들은 우선 큰 사람이 될 겁니다. 어떤 큰 사람입니까?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않는” 큰 사람입니다. 구약에 보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말씀이 두 곳에 나옵니다. 하나는 제사장이 회막에 들어갈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장 일을 수행할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안 됩니다 (레 10:9). 또 하나는 어떤 목적을 위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사람을 나실인으로 구분하는데 나실인이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동안에도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안 됩니다 (민 6:3, 20). 그런데 사가랴의 아들은 그런 조건 그런 기간과 무관하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을 거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생애 전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목적을 위해 구분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게다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다” 하였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면 다 성령을 선물로 받지만 아직 구약시대입니다. 그러니 성전에서 향도 피운 것 아니겠습니까?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 이렇게 세 가지 직분을 맡은 사람에게만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것도 늘 계신 게 아니라 직분을 수행하는 동안에만 와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가랴의 아들 요한은 태어나기도 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는 태어나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수행하게 될 겁니다.

돌이키는 일

무슨 특별한 사명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온 백성을 위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그 사람들을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입니다. 엘리야의 영과 힘으로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엘리야는 악한 왕 아합 시대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 주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 사람입니다.

사가랴의 아들도 그런 일을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돌이킬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의 탄생을 기뻐할 것입니다. 사람을 돌이키기 위해 하나님보다 먼저 갈 것입니다. 선구자가 되어 먼저 가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준비할 것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주를 위하여 하나님이 한 백성을 준비하셨는데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새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시키는 일을 사가랴의 아들이 할 것입니다. 오랜 세월 약속하신 구원을 하나님이 이제 이루실 건데 내 아들이 먼저 가서 그 일을 준비하게 된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엄청난 말씀을 듣고 사가랴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못 믿고 벌을 받아 말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다음 혀가 풀려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때 사가랴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 아이여, 네가 지금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눅 1:76-77). 사가랴의 아들 요한이 할 일은 결국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인데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는 걸 전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미리 준비시키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던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에게 일어난 이 일을 보며 우리는 먼저 의로운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확인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없던 큰 아픔을 가진 부부였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

은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도 이들의 기도를 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경건한 부부가 가진 아픔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특별한 뜻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순종하며 살아도 아픔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은 이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하나님을 떠난 세상, 그래서 죄로 신음하는 세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경건하게 살아도 죄가 주는 아픔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을 달라 한 이들의 기도는 그저 “내 아픔을 없애 주세요” 하는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이 아픔의 근본 원인을 없애 달라는 기도가 된 것입니다.

먼 옛날 한나도 그랬습니다 (삼상 1:1-11; 2:1-10). 자기가 부인인데 자식이 없다 보니 남편의 첩한테서 멸시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식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나 개인의 아픔을 갖고 기도하였지만 한나가 기도한 내용이나 나중에 하나님께 드린 찬양을 보면 그저 개인의 원한을 푸는 차원이 아니라 내 원한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큰 틀에서 보고 근본적인 해결을 간구한 그런 기도였습니다. 자식이 없어 구박 당하는 나에게 자식을 하나 주시면 내 억울함만 풀어지는 게 아니라 약한 자를 돌아보시고 억울한 자의 사정을 살피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나아가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인 죄를 놀라운 구원으로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입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필요한 건 자식이 아니라 자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주신 자식은 다시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약을 했던 것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자식이 없어 아파하는 내 아픔만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비슷한 아픔을 겪는 사람, 나아가 크고 작은 아픔을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한 일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바쳐도 괜찮습니다. 그저 감사할 뿐이지요.

기도와 하나님의 뜻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 15:7). 우리 마음이 주님 마음과 하나가 되면 우리 기도도 하나님의 뜻과 같아집니다. 우리가 크고 작은 아픔이나 필요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 아뢰는 것이 기도인데 우리 마음이 주님과 하나가 안 되어 있으면 그저 나 하나의 유익을 위한 것으로 끝납니다. 그런 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니 하나님 응답도 못 받습니다 (약 4:3).

경건하게 살던 사가랴,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 기도의 향을 올려 드리던 그 사가랴에게서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 진짜 기도의 힘을 봅니다. 내 간절한 소망이 하나님의 뜻과 주파수가 맞아 들어갈 때 하나님은 그 소망을 당신의 뜻에 맞게 들어 쓰십니다. 그러면 내 작은 기도가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그래서 결국은 온 인류를 위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사실 기도하면서도 못 믿었습니다. 자식을 달라고 아직도 기도는 하지만 나도 아내도 이렇게 늙었는데 설마 자식을 주실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말씀하셨을 때 못 믿은 거지요. 그럼 사가랴의 기도가 영터리였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사가랴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가질 믿음은 내가 가진 아픔이나 필요 그걸 하나님이 당장 해결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못 하시는 게 없는 분이요 또 나보다 생각과 판단이 높고 깊으신 분이요 그리고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분인 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병어리가 되었지만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행 12:1-17).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탈옥을 해 철야기도를 하고 있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이가 문을 열어주러 왔다가 베드로인 걸 알고 뛰어 들어가 방금 문을 두드린 사람이 베드로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 미쳤구나” 그랬습니다. 베드로를 구해 달라고 기도하던 사람이 베드로가 구출되어 문 앞에 있다 하니 못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믿음의 기도입니다. 너무나 엄청난 결과 못 믿은 거지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못 믿은 건 아니었으니까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내 답답한 사정을 아뢰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정을 풀어주실지 그건 모릅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된 뒤에도 계속 기도했습니다. 아이 하나 얻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이 옳지 않은 상황을 풀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더 나아가 온 우주에 있는 그런 잘못된 일들을 다 풀어주셔야 되겠기에 계속 기도한 것입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이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실 때는 그 두 사람이 꿈도 꾸지 못한, 내 아들이 메시아의 선구자가 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가랴가 꿈에도 그리던 자식을 얻었을 그 무렵 평생을 기도하고도 자식을 못 얻은 부모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가랴에게 아들을 주셔서 주의 길을 예비하게 하시고 끝내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자식을 못 얻은 그 사람들의 기도 역시, 그 기도가 참된 기도였다면, 분명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기도와 주 예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문제로 뒤덮인 세상입니다. 문제가 있으니 뭘 합니까? 기도하지요. 문제가 복의 계기가 됨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에게도 자식 없는 아픔이 더없는 복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포함한 온 인류의 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아픔이 기도로 이어졌고 그 기도가 메시아의 길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문제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는 어떤 문제든 그 문제는 주 예수께서 열른 오시기를 기다린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다 죄에서 왔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 꼭 “주님 어서 오셔서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고 간구 안 해도 내 깊은 아픔, 이 답답한 마음, 이 내 간절한 소망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께 아릴 때 그 기도는 곧 대림절 기도가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요즘 어떤 기도를 주께 드리고 있습니까? 기도할 것 많지요. 남한테는 말도 못 하는 기도제목이 많지 않습니까? 꼭 두 손 모으고 자세 안 잡아도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간절한 소원은 곧 하나님을 향한 내 기도입니다. 내가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만큼 우리의 아픔을 함께 느끼시는 하나님도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사가랴에게 오셔서 “네 기도가 응답되었다” 하신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응답의 약속입니다.

바른 삶

진짜 기도는 어느 것이나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 바른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삶 역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바른 삶 없이는 바른 기도도 불가능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철저하게 살았습니다. 아직 주 예수께서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메시아를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열심히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삶이 요한이라는 아들로 열매를 맺었고 그 요한의 준비로 온 우주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 간절한 소망이 말씀대로 사는 내 의로운 삶과 이어질 때 나 한 개인의 소망이 온 인류를 위한 소망이 됩니다. 결국 참 기도는 온 인류의 기도요 우리 모두의 기도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기도입니다. 시작은 그저 내 필요한 것부터 하나님께 아뢰겠지만 우리가 바른 기도를 드린다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나타나고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가만 계시는 걸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직 세상에 죄가 있으니 늘 조금은 모자라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아픔에 관심을 쏟으시고 우리 간구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를 위해 부지런히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런 하나님을 다시금 발견하고 믿음에 굳게 서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권수경 목사)